강진 병영면에 '전남형 빈집 재생' 모델 구축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군, 전남도시재생센터 등과 포럼…지속가능 방안 마련
강진원 군수 "공공서 민간 확대…소멸 위기 극복 모델화"

강진군이 빈집재생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 방안을 마련한다.

14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공동 주관으로 '2025년 전남형 빈집재생 현장포럼 in 강진 병영'을 개최했다.

전남도와 목포시, 순천시, 장성군, 영암군 등 도내 9개 시·군에서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중간지원조직, 주민앵커조직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강진군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성하객잔(병영면 홍교로 602)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은 1부 전문가 강연과 사례 발표, 2부 현장답사 및 워크숍으로 나눠 구성됐다.

1부 강연은 농림축산식품부 자문위원인 농촌경제연구원 정문수 연구위원이 '국내외 빈집정책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빈집재생 사례와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사례발표는 ㈜싸이트지니 이창민 소장이 남해군에서 진행했던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빈집거래 플랫폼 '봄집' 운영과 빈집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곡성군 팜앤디 협동조합 서동선 대표는 '유휴공간 활용, 새로운 가치 창출'을 주제로, 청년 살아보기 프로젝트인 '청춘작당'과 워케이션 공간인 '러스틱하우스'를 운영사례를 이야기하고, 지방소멸지역의 유휴공간 재생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제안했다.

2부 현장답사는 관외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시재생사업과 빈집 리모델링 사업지를 투어하고, 레지던스와 워케이션 등 빈집 활용해 진행했던 프로그램 결과물을 전시한 공간과 폐양곡창고를 재생해 조성한 하멜양조장 등을 방문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병영면에서 열린 빈집재생 포럼에 많은 시·군에서 찾아줘 빈집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강진군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한 빈집재생사업을 민간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할 모델로 만들고, 나아가 전남형 빈집재생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묵 기자 sa4332252@gwangnam.co.kr

무안, '임대형 스마트팜' 선정
국비 100억 포함 200억 규모

무안군은 전남도에서 추진한 '2026년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 최종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은 청년농의 안정적인 스마트팜 진입을 위한 장기 임대팜 조성(5+5년 임대)과 지자체 자체 조성(생산, 유통, 가공, 정주 등) 관련 전후방 산업 집적화를 통한 지역단위 스마트팜 거점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100억원을 확보해 총 200억 규모로 현경면 일원을 중심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지원센터 등을 구축한다.

아울러 별도 군 자체 지원단지(공동육묘, 교육·실증, 유통·가공, 정주시설 등)를 연계 조성해 전후방 산업을 집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임대형 스마트팜과 군 자체 연계 시설을 기반으로 농식품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위한 내년 초 현장평가를 앞두고 있어 남은 기간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최광재 무안군 식량원예과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이상기후와 농업인구 감소, 고령화 등 위기에 직면한 농촌지역에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조성되게 됐다"면서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첨단 시설에서 농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농업 경쟁력 제고, 청년농 유입 촉진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진도군은 최근 한전엠씨에스㈜ 진도지점(지점장 고수정), 진도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기동대장 박재석)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진도, 민관협력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한전엠씨에스·복지기동대와 위기가구 지원 업무협약

진도군은 최근 한전엠씨에스㈜ 진도지점(지점장 고수정), 진도군 우리동네복지기동대(기동대장 박재석)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군은 기관과 단체가 지닌 현장 경험과 업무 특성을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즉각적인 지원이 이어지도록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전기 검침과 고지서 전달 등 가정방문이 잦은 한전엠씨에스 직원들의 현장 접근성이 이장과 전기, 수도, 설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동네복지기동대의 현장 대응 능력과 결합해 위기가구를 더욱 신속하게 발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독사 고위험군·은둔형 외톨이 등 위기가구 발굴, 단전 위험·주거환경 악화·고립 등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 징후의 신속 제보 체계 구축 등이다.

협약에 따라 한전엠씨에스 직원들과 우리동네복지기동대원들은 현장에서 위기가 의심되는 가구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게 되며, 행정복지센터는 해당 가구의 상황을 확인해 맞춤형 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고수정 한전엠씨에스 진도지점장은 "전기 검침을 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자주 마주하게 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기 신호를 감지하는 유관 단체와 기관과의 협력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 요소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힘을 모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해남 청년두드림센터, 문화 거점 활약
대관서비스·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인기

해남군 청년두드림센터가 청년 창업과 취업, 문화 여가활동의 거점으로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021년 개소한 해남 청년두드림센터는 다양한 대관 서비스와 청년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취업 상담·지원, 면접복 대여 서비스, 공유 공간 이용 등 다양한 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의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향기로운 테라피, 플로리스트, 원예테라피 등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금까지 1273명의 청년들이 참여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또 올해에는 청년 우수센터로 선정돼 인센티브 확보를 통해 청년들의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쿠킹 클래스와 금융경제 클래스 원데이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BLUE FRIDAY' 프로그램을 통해 매월 청년 창업자들의 가게를 소개하고, 이를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두드림 옷장' 면접복 대여서비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두드림 센터는 회의실, 사무실, 공유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을 대관 서비스는 총 5593명이 이용해 지역 청년들의 회의, 세미나, 문화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사회의 문화적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지역 청년 거점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두드림센터의 다양한 청년 지원 사업들이 지역 경제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해남군 청년두드림센터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이 기념촬영을하고 있다